



비둘기네 집 이야기

리 희 건

우리 아빠

못새들이 모여사는 어느 한 숲속에 비둘기 엄마가 살고있었습니다.

비둘기엄마한테는 어린 두 오누이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힘으로 푸른 하늘을 날면서부터 자기들을 품어주고 키워준 고생많은 엄마를 극진히 위해주었습니다.

맛있는것이 생겨도 엄마를 먼저 생각하였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것을 가져다가 엄마의 가슴에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누이는 이웃들한테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메추리네 애들에게 날아다니는 법을 배워주기도 하고 장난꾸러기 막내까투리가 내물에 젖어 오돌오돌 떨고있는것을 보고 집에까지 업어다주기도 했습니다.

산림속의 의사로 소문난 클락새는 나무잎속에 숨어있는 좀벌레들을 숨씨있게 잡아내는 비둘기오누이의 모습을 보며 푸른 숲의 참된 주인들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이웃들이 입을 모아 오누이를 칭찬할 때마다 비둘기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먼저간 아빠를 꼭 닮았지요.》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참, 그래요. 아빠비둘기는 동산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말 훌륭한 분이였지요.》

동산의 새들도 모두 엄마비둘기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비둘기오누이가 어느때없이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숲속동산, 들마을동산이 다 같이 모여 하는 자랑이야기모임에 출연하게 돼요. 훌륭한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하라고 우리 학교에서 추천해주었어요.》

오빠비둘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고마운 일로구나.》

엄마비둘기가 너무 기뻐 눈물이 글썽해 지는데 동생비둘기가 어리광부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이야길 들려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동산을 위해 용감하게 한몸바칠수 있었나요? 어서요.》

엄마비둘기는 오누이의 얼굴을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진 남을 도와주는걸 행복으로 여기곤 했단다...》

이렇게 시작된 엄마비둘기의 이야기는 세월을 거슬러 아빠, 엄마비둘기가 새살림을 펴던 때로 흘러갔습니다.

첫 다름질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다정한 비둘기부부는 사계절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가지우에 아늑한 보금자리, 행복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두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알은 비둘기부부의 마음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두개의 알은 비둘기부부의 기쁨이고 웃음이었었습니다.

동무새들도 제일처럼 기뻐하며 엄마비둘



기, 아빠비둘기라고 정답게 불렀습니다.

요즘 비둘기부부는 참으로 기쁘고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을 잘 키우시다. 푸른 숲의 참된 주인들로 말이요.》

《저도 모든것을 다 하겠어요. 참, 어떻게 생긴 애들이 태어나게 될가요?》

엄마비둘기가 수집음을 타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처럼 얼굴이 곱고 마음씨도 고운 딸이면 좋겠구만.》

아빠비둘기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처럼 건장하고 인정많은 사내라면 좋겠어요.》

그들은 하하 호호 웃었습니다.

한참후에 아빠비둘기가 정색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알품는것 말이요, 아무래도 내가 낮에 알을 품어야겠소.》

《아니, 그건 왜요?》

엄마비둘기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밤에 꼭 할일이 있어 그로요.》

《할일이요? 그게 뭐냐요? 어서 말해요.》

엄마비둘기는 바싹 다가앉으며 재촉했습니다.

《사실은 부엉이네 집짓는걸 좀 도와주려구. 부엉이네 맏이가 세간을 났는데 낮눈 어두운 부엉이가 새집짓는 일을 꽤나 힘들어하누만.》

아빠비둘기의 말에 엄마비둘기가 앵둘아했습니다.

《그건 절대루 안돼요.》

《아니, 왜 그러요?》

《글쎄 안된다니까요. 당신이 이 집을 짓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또 남의 집까지... 절대루 안돼요.》

엄마비둘기는 아예 눈을 내리깔고 새파래서 내쫓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비둘기도 어지간히 등이 달았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고집이 보통이 아니구만.》

비둘기부부는 한참이나 싱갱이질을 했습니다.

엄마비둘기가 발끈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지 않았나요. 나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말이예요.》

그러자 아빠비둘기도 지지 않고 한마디했습니다.

《당신은 뭐 약속 안했소? 자기때문에 속을 썩이는 일은 한평생 없을거라구 말이요.》

말을 멈추고 한동안 마주보던 아빠비둘기가 한참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두 내 성질 알지 않소.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걸 말이요. 그게 다 동산을 위한 일이 아니겠소.》

그 말에 엄마비둘기도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그걸 몰라 그러나요? 제 몸도 생각해야지. 동산창고도 지을래, 새로 만든 잣나무모발을 돌보느라 당신몸이 썩 축갔는데 좀 쉬어야지. 낮에 꼬박알을 품고 또 온밤 일하다 쓰러지면...》

《그건 걱정마요. 난 별일없으니...》

《당신두 참.》

엄마비둘기는 하는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둘기부부는 낮과 밤을 엇바꾸어가며 알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방울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아빠비둘기는 따가운 햇빛속에서

알을 품고있었습니다.

이때 저쪽 오동나무에서 사는 동고비가 바다구경을 함께 가자고 찾아왔습니다.

바다에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것은 아빠비둘기의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도리머리를 저었습니다.

《동고비, 난 지금 알을 품고있네.》

그랬더니 동고비는 놀려대듯 말했습니다.

《우리야 집이나 덩실하게 지어주면 그만이지 알까지 품고있겠나. 내가 다 창피하구만. 싫으면 할수 없지.》

동고비는 바다가쪽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 모양을 보며 아빠비둘기는 속다짐했습니다.

(난 후에 자식들을 데리고 바다구경 갈테야.)

어느덧 하루해는 저물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비둘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들이 돌보는 어린 잣나무들이 잘 자란다고 밝게 웃으며 집에 들어서던 엄마비둘기였습니다.

(왜 아직 안 올가?)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수록 근심덩어리는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려는지 남쪽하늘에서는 먹장구름이 꾸역꾸역 밀려왔습니다.

마음갈아서는 당장 엄마비둘기를 찾아가고싶었지만 품고있는 알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바다구경갔던 동고비가 그의 앞으로 날아가고있었습니다.

《동고비, 우리 엄마비둘기를 보지 못했나?》

《못 보았네. 그런데 왜 그러나?》

동고비는 옆에 있는 나무가지우에 내려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점심때 나가서는 아직 오지 않아서 그래.》

《혹시 다른 고장으로 영영 가버린건 아닐가?》

《아니, 뭐라구? 무슨 끔찍한 소릴 하나? 제가 낳은 알들이 여기 있는데.》

《알이 무슨 상관인가. 제 몸이 편안하면 그만인걸. 남의 등지에 제 알을 낳아 키우는 뼈꾸기란 새도 있다네.》

《우린 뼈꾸기와는 달라.》

아빠비둘기가 내쫓듯 말하자 동고비는 마주하고있는것이 멧적었던지 제집으로 가버리고말았습니다.

숲속엔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정말 다른 곳으로 가버렸을가? 그러면 후날 자식들이 알에서 까나와 제 엄마를 찾을 땐 어떻게 대답을 하나!)

엄마없는 애라고 남들이 깔보고 놀려댄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멎는것만 같았습니다.

다음순간 아빠비둘기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럴수 없어. 알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어. 꼭 돌아올거야.)

차거운 비방울이 떨어져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비둘기는 알들이 비에 젖을세라 두 날개로 꼭 껴안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많이 내렸지만 엄마비둘기한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가? 혹시 나쁜 놈들한테 잘못되지 않았을가? 요즘 족제비놈이 가끔 나타난다는데.)

그를 찾아 떠날수 없는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이때 저쪽에서 누군가가 비발속으로 힘겹게 날아오고있었습니다.

눈여겨 살펴보니 애타게 기다리던 엄마비둘기였습니다.

《여보.》

그는 반가움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아빠비둘기한테로 날아온 엄마비둘기는 비를 맞고있는 그의 몸에 무엇인가를 얼른 썩여주었습니다.

가득나무잎이였습니다.

《여보, 어찌된 일이요? 당신을 기다리느라 속이 까맣게 탔소.》

정작 만나고보니 기쁨보다 노여움이 앞섰습니다.

엄마비둘기는 말했습니다.

《잣나무모발을 가꾸고 집으로 오는데 청제비가 알려주더군요. 좀 있으면 비가 내린다고 말이예요. 그래서 저 가득나무끝에 가서 가득나무잎을 따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집을 잃은 두더지네 애들이 엄마를 찾으려 울고있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애들

을 엄마가 있는 집에 엮어다주느라고 그만 늦어졌어요.》

《아니, 그럼?!》

비에 온몸이 젖은 엄마비둘기를 보는 아빠비둘기는 몹시 죄스러웠습니다.

《난 그런줄도 모르고 순간이지만 당신을 의심했었어.》

그는 동고비를 만났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믿어주니 고마워요.》

엄마비둘기는 진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부부가 사는 행복의 집 아늑한 보금자리에는 한방울의 비도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래일은 알을 품고있는지 열다섯번째 되는 날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귀여운 자식들을 볼수 있게 된 비둘기부부의 기쁨은 말할수 없이 컸습니다.

엄마비둘기는 자기의 귀를 알에 살며시 가져다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오는것만 같았습니다.

(래일이 빨리 왔으면.)

비둘기부부는 알결에서 순간도 떠나고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점심때까지는 당신이 품고해가 질 때까지는 내가 품는게 어쩡소.》

《그렇게 하자요.》

엄마비둘기는 제격 응했습니다.

《당신 물앵두가 먹고싶다고 했지. 물앵두를 따가지고 인차 오겠소.》

아빠비둘기는 저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비둘기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있는 한 우리 집엔 그 어떤 불행도 생기지 않을거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나무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결에 나무밑을 내려다보던 엄마비둘기

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글쎄 족제비놈이 나무우로 살금살금 기여오르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놈이?)

엄마비둘기는 제 살점과 같이 소중한 알을 노리고 달려드는 족제비한테 순순히 굽어들수 없었습니다.

《이놈아, 썩 물러가거라.》

엄마비둘기는 솔방울이며 소나무가지들을 족제비놈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족제비놈은 《너 혼자 나와 맞서겠다구? 대상도 안되지. 너까지 잡아먹기 전에 공손하게 알아나 내놔.》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만 살겠다고 알을 버리고 달아날 엄마비둘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비둘기는 품고있던 알을 두 날개안에 한알씩 꺼안고 옆에 있는 단풍나무우로 가려고 했지만 알들이 땅에 떨어질것 같아 도저히 날개를 저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개의 알만 가지고 날아갈수도 없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아빠비둘기와 함께 있었더라면.)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족제비는 두눈을 번뜩거리며 점점 가까이로 기여올라왔습니다.

엄마비둘기는 자기가 죽는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래일이면 까날 소중한 알까지 족제비한테 먹히운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내가 돌이 되어서라도 저놈의 골통을 박살낼테야.)

엄마비둘기는 두개의 알을 정답게 바라보았습니다.

(애들아, 아빠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거라. 여보, 애들을 부탁해요.)

사랑하는 알들과 작별한 엄마비둘기는 앙금앙금 다가드는 족제비의 머리우를 날아며 뚫었습니다.

《이놈아,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네놈의 숨통도 끝장이라는걸 알아라.》

엄마비둘기의 서리발같은 기세에 기가 질린 족제비는 무서워 더 기여오를념을 못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죽제비 이놈, 여기가 어디라구 함부로 기여드는거냐?》 하는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왔습니다.

아빠비둘기였습니다.

그러자 죽제비는 겁에 질려 비실비실 달아나고말았습니다.

《여보, 얼마나 놀랐겠소. 몸은 상한데 없소?》

아빠비둘기가 엄마비둘기의 온몸을 찬찬히 살펴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 별다른 일이 없어요. 알들도 무사하구요. 당신이 아니었다라면 정말 큰일날뻔했어요.》

엄마비둘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늑한 보금자리, 행복의 집에 들어온 그들은 알을 한알씩 자기의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비둘기의 날개죽지에서 빨간 피가 흘러내리고있었습니다.

《여보, 어찌다가 이렇게 됐어요?》

엄마비둘기는 험한 상처를 쓸어만지며 근심스레 물었습니다.

《개구마리네 창고짓는 일을 도와주다가 좀 상했소.》

아빠비둘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비명소리는 저쪽 오동나무숲속에 있는 동고비네 집쪽이었습니다.

아빠비둘기는 품고있던 알을 내려놓고 재빨리 동고비네 집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동고비네가 사는 오동나무앞에 이른 아빠비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글쎄 죽제비놈이 오동나무옆 잣나무에 새둥지모양으로 지어놓은 동산 씨앗창고를 향해 발발 기여오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둘기네 집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분풀이를 하려고 불똥치까지 들고 기여오르는 죽제비놈의 두눈에는 살기가 번뜩이었습니다.

죽제비놈이 씨앗창고에 불을 지르는 날이면 기름나무씨앗들이 불에 타 탁탁 튀면서 바짝 마른 숲속에 사방 불티를 날리게 될것이고 그러면 온 숲이 불길에 휩싸이게 될것입니다.

동고비엄마도 그걸 알기에 여섯이나 되는

새끼들을 그러안고 어쩔바를 몰라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순간도 지체할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비둘기는 상한 날개를 힘겹게 저어 하늘높이 날아올랐다가 촛살같이 내리꽂지며 죽제비놈의 눈통을 부리로 찔렀습니다.

뜻밖의 봉변을 당한 죽제비는 《아이쿠!》 하고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놈은 떨어지면서도 날개를 상해 다시 재빨리 솟구쳐오르지 못한 아빠비둘기를 짝 붙잡았습니다.

둘은 한덩어리가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죽제비놈은 눈통이 터진데다 다리까지 부러졌습니다.

아빠비둘기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날개를 상해 피를 많이 흘린데다 죽제비놈과 싸우느라고 몹시 지쳤던것입니다.

이때 《죽제비놈을 쳐없애자!》 하는 웨침이 사방에서 울려왔습니다.

동고비며 개구마리, 장끼를 비롯한 못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푸른 숲 동산에 몰래 기여들군 하던 죽제비놈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비둘기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

아빠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는 비둘기오누이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누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들아, 그때 너희 아빠가 자기 한몸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집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니. 너희 아빠가 한몸바쳐 동산을 구원했기에 오늘까지도 모두가 아빠를 잊지 못해하는거란다. 너희들도 아빠처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동산을 위할줄 아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알겠어요. 우린 어머니의 그 마음도 자랑이야기모임에서 말할래요. 우리들의 결의도요.》

비둘기오누이는 엄마의 말에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힘있는 목소리는 온 숲에 울려갔습니다.